

“개인정보 유출 걱정”... 불안한 수기명부

수기 출입명부 4주 내 파기 원칙이지만 확인 어려워 명부 보고 연락 사례도... 이름 빼고 적어도 우려 여전

“A씨인가요? 코로나 명부 보고 연락 했어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명부 보고 연락 사람의 문자 내용’이라는 게시글이 화제였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일면식이 없는 한 남성이 “이것도 인연이다. 외로워서 연락했다”며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에서 수기 작성식 출입명부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방문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고, A씨의 사례처럼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 명부

지침에 따르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명부는 4주 후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으로 파기되는 QR코드 방식과 달리 수기명부는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거나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명부가 제대로 파기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출입자가 수기 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이르면 이달 중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변경된 수칙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B씨는 “핸드폰 번호만 저장하면 카카오톡 프로



제주 시내 한 카페에 수기 출입자 명부가 놓여져 있다. 강다혜기자

필에 자동으로 닉네임이나 사진이 다 뜨는데, 이름만 빼고 개인정보 보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누군가 수기명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DB로 사용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글씨를 일부러

알아보게 힘들게 적는 경우도 생겨난다. C씨는 “방역을 위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남들이 못 알아보게 일부러 악필로 쓸 때도 있었다”며 “번호를 비롯한 남의 정보를 근본적으로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자에게 방역지침 이행 협조를 안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4주 후 꼼꼼히 파쇄해 달라고 알려드렸다”며 “하지만 종종 수기 명부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시청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경우 수거해서 직접 파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그날 명부는 당일에만 사용하고, 명부에 적힌 정보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중·고 영어듣기평가 15일부터 실시

“격주등교 학교 자율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제2회 영어듣기능력평가’를 15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들의 영어듣기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제 출제를 위탁,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평가 일정은 ▶중학교 ▶15일 1학년 ▶16일 2학년 ▶17일 3학년 ▶고등학교 ▶22일 1학년 ▶23일 2학년

▶24일 3학년 등이다. 듣기평가 방향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20분 내외로 EBS FM 라디오(제주 107.3MHz·서귀포 104.9MHz)를 통해 송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주등교가 겹치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학교 상황에 따라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듣기평가 듣기 대본과 문항, 정답은 듣기평가 종료 직후 EBS 중학 사이트, EBS 고교강의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검정고시 315명 합격... 최고령 65세

최연소 합격자는 11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을 지난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초졸 검정고시에는 30명이 응시해 20명이 합격했으며, 중졸 검정고시에는 84명이 응시, 74명이 합격했다. 고졸 검정고시는 297명이 시험에 나서 221명이 합격했다.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

자는 김모(62·여)씨, 최연소는 김모(11)군이였다. 중졸 최고령 합격자는 김모(65·여)씨였고, 최연소는 송모(12)군이였다.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강모(60·여)씨가 최고령, 김모(13)군이 최연소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합격자 명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혹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태풍 피해 발작물 재배농가 특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차례의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발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발작물 재배)에 월동채소를 추가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1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균등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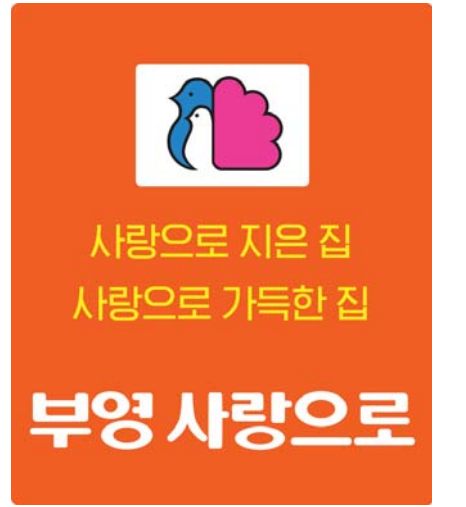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물농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를 한정한다. 필지 단위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신청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특별지원과 별도로 침수피해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약대를, 폐작된 경우에는 1ha당 240만원부터 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지원받게 된다.

이태윤기자



13일 제주 동부지역에 기습 폭우로 침수된 택시를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사진=제주동부소방서 제공

동부지역 갑작스런 폭우... 차량 침수 피해

표선 시간당 40mm 강한 비 남부에도 특보... “피해 주의”

제주 동부지역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제주 동부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가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해제했다. 특히 서귀포시 표선면에 시간당 4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한 마을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불어난 빗물에 침수돼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엔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깊은 곳은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 40분을 기해 제주도 남부에 호우주의보

를 발효했다. 서귀포시 남읍읍엔 오후 2시 기준 시간당 최고 56mm, 표선 55.5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비는 14일 새벽 3시쯤까지 이어지다 오전에 잠시 멈춘 뒤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시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에 의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동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11일까지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8일 기준 제주도내에 주소와 함께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년 1월 1일~2013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 카드가 지급된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단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2020 제주바다사랑 그림 사진 시상식

제21회 바다환경대상 시상식 유튜브 라이브 진행

YouTube 유튜브 검색창 : 2020제주매일-바다 환경 바다사랑 검색

제주도를 사면으로 감싸주는 청정바다는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바다가 오늘날 산업사회가 낳은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매일은 아름다운 바다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 「제주바다환경대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다환경정화 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어촌계 및 양식장과 바다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입상자에 대해 제21회 제주바다환경대상 비대면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20년 9월 19일(토) 오후 3시

시상부문 : 바다환경대상 부문 / 바다사랑공모전 부문

주최·주관 : (주)제주매일

후원 :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제주매일